

1년이나 지났는데...코로나 방역 당국 여전히 '우왕좌왕'

교회별 코로나 확산...광주시 북구 임시선별진료소 가보니

“내내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만 검사하냐” 학부모 항의에
“학부모 명단 받으려면 오래 걸려...보건소 진료 받아라”
방역 사각지대 없게 촘촘한 선제적 방역매뉴얼 있어야

“주말 내내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 했는데, 아이들만 검사하는 방역지침이 말이 됩니까?”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 방역 현장의 혼란은 여전했다.

24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A 어린이집·유치원 놀이터에 세워진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앞은 방역당국과 학부모들의 말싸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난리법석이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선별진료소가 세워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뒷편의 북구 빛내리교회 목회자와 가족권 계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어린이집원생 40명·유치원 원생 75명, 선생님 15명, 기타 출입자 7명 등 총 137명이다.

자녀의 감염을 우려한 부모들은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는 바람에, 애들만 옷을 입고 자신들은 옷도 따뜻하게 걸치지 못한 채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만 신은 경우마저 많았다.

전날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 검사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컸지만 아이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애를 쓰는 등 격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유치원 놀이터 안으로 학부모들은 통제된 채 어린이들만 들여보내 검사를 진행했다.

코 속으로 검사키트가 들어가는 검사가 진행되자 아이들은 곧 울음을 터트렸고, 선별 진료소는 아이들의 울음바다가 됐다.

놀이터 울타리 밖에서 자녀들을 기다리던 부모들은 ‘과자를 사주겠다’, ‘깎아주고 장난감 사러가자’ 등의 약속을 하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우는 아

이를 달래기 위해 연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댔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방역 당국과의 말다툼도 발생했다.

한 학부모는 “주말내내 아이와 붙어 지냈는데, 가족들의 검사는 미뤄도 되느냐”며 항의를 했다. 이날 선별진료소에서는 학부모와 다른 가족들의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의가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학부모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결과는 학부모와 가족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과 접촉관계가 있는 어린이들만 임시선별진료소 검사대상자라는 것이 이유였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명단을 다시 받아 검사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보건소로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일토당토 않은 답변이 전부였다.

다른 학부모는 “교회나 어린이집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게 한두번도 아니고, 원생 따로 학부모 따로 검사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방역 매뉴얼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방역당국의 매뉴얼 자체가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역 현장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리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 자칫 다른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촘촘한 방역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해당 교회 확진자 감염이 이틀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촘촘한 선제적 방역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해당 어린이집·유치원생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4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빛내리교회 앞에서 경찰과 방역 관계자들이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북구, '코로나 위기' 중기·소상공인 지원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민생경제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행정·재정 ▲소상공인·지역

업자 ▲중소기업 ▲고용 ▲재난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 5개 분야 52개 과제를 선정, 계층별·업종별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방세 감면, 광주상생카드 사용, 전통시장 장보기 등 행정 지원과 함께 지역민들의 소비 촉진을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간다는 게 북구의 계획이다. 북구는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 전통시장·전문상점가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취약시설 방역물품 지급, 위기가구 긴급복지 등 재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 '용봉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1957년부터 대학본부 사용...인문대 1호관·의과대 이어 세번째

전남대학교의 옛 본관이었던 '용봉관' (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전남대 용봉관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전남대는 인문대학 1호관 (2004년 9월)과 학동에 위치한 의과대학 건물 (2018년 8월)에 이어 세 번째 문화재등록 건물을 갖게 됐다.

용봉관은 건물 중앙부를 수직으로 높게 처리한 탑상형 구조물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부분이 입면, 평면 처리된 수법 등이 1950-1960년대 공공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 근대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용봉관은 1957년 12월부터 1996년 5월까지 30년 가까이 대학본부로 사용된 건물로, 대학의 70년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5·18민주화운동의 항쟁지 중 하나라는 역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재는 대학역사관으로 1층은 영상실 및 민주전사관, 5·18기념관, 2층은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로 조성돼 체험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어느 중학교·고등학교 배정될까 광주교육청 28·29일 추첨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 신입생을 배정한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생 배정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주관으로 28일 전산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예비 중학생들이 졸업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입학 예정 중학생 수는 총 1만 4319명으로 지난해보다 1295명(8.3%) 감소했다. 배정 중학교는 올해부터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비아중을 제외한 90개교다.

고등학교 배정은 시 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전산 추첨으로 발표된다.

예비 고등학생들이 지망하는 고교들을 고려해 배

정하는 방식으로 중학교와 달리 원거리 고교로 배정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학생들 간 허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올해 입학 예정 고등학생 수는 1만 803명으로 지난해 1만 1950명보다 1147명(9.6%) 감소했다. 배정 고등학교는 후기(인문계) 고교 49개교다. 전기(특성화) 고교 19개교는 학생들을 자체 모집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고등학교가 몰려있어 불거피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동신대, 등록금 동결

입학금 50% 인하

동신대학교가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은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동신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50% 인하를 단행하고,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과 입학금 모두 동결한다고 밝혔다.

동신대는 대학 예산 운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0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최근 13년 중 무려 12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해왔다.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교육 중심 대학답게 재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 장학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취업 잘 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동신대는 지난해 재학생 4명 중 1명이 1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재학생 36.6%가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전체 재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을 정도로 장학 혜택이 풍부하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제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되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각각 오른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제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 임금교섭을 해 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중-44360호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숙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제 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숙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원 서정한의원 원장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저희 서정한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가능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분당선 신정동역 2번출구에서 약 60m /리마더 서울호텔 맞은편

서정한의원 seojung.com

소아비만, 성조숙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